승가의 첫발, 승보로 거듭나는 관문

〈僧寶〉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⑤ 출가와 수계



스스로 정진의 길을 택한 출가자에게 수계란 매우 엄중한 일이기에, 의식 또한 매우 엄숙하게 진행된다. 사진은 조계종이 4월 16일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한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atha kho āyasmā Aññātakoṇḍañño diṭṭhadhammo pattadhammo viditadhammo pariyogāḷhadhammo tiṇṇavicikiccho vigatakathaṃkatho vesārajjappatto aparappaccayo satthu sāsane bhagavantaṃ etad avoca : labheyyāhaṃ bhante bhagavato santike pabbajjaṃ, labheyyaṃ upasampadan ti. ehi bhikkhū'ti bhagavā avoca, svākkhāto dhammo, cara brahmacariyaṃ sammā dukkhassa antakiriyāyā'ti. sā'va tassa āyasmato upasampadā ahosi.

爾時尊者阿若憍陳如. 見法得法成辦諸法已獲果實. 前白佛言. 我今欲於如來所修梵行. 佛言來比丘. 於我法中快自娛樂. 修梵行盡苦原. 時尊者憍陳如. 卽名出家受具足戒. 是謂比丘中初受具足戒. 阿若憍陳如為首.

존자 앙냐 꼰당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깨우쳐 들어가, 의심을 뛰어넘고 의혹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여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세존께서 말했다. "비구여,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는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존자에게 구족계가 되었다.

– 마하박가 대건도 –

동안거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봄이 오면 조계종에서는 많은 수계(授戒)식이 거행된다. 출가하여 행자 생활을 거쳐 예비 승려가 되는 사미(沙彌)·사미니(沙彌尼) 수계식, 여성 출가자에게만 이루어지는 비구니가 되기 전 2년 동안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 수계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 구족계(具足戒, upasampadā) 수계 의식이 그것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이 열려 42명의 비구 스님과 31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구족계를 수지하며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최초로 구족계를 받은 이들은 붓다와 함께 출가하여 고행 정진했던 다섯 명의 수행자였다. 붓다는 깨달음을 성취한 후 첫 교화 대상으로 녹야원에서 정진 중이던 이들을 찾아갔고, 붓다의 설법을 들은 교진여가 가정 먼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붓다에게 정식으로 구족계를 청하여 첫 비구가 되었다. 첫 비구가 탄생하면서 불교의 근본 귀의처이자 소중한 보물인 삼보(三寶)가 비로소 완성됐다.

삼보 중 불보(佛寶)는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며 성립됐고, 법보(法寶)는 타붓사와 발리카 두 상인에게 행한 첫 설법을 통해 성립됐다. 마지막 승보(僧寶)는 붓다와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출가 서원을 통해 성립돼 삼보의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이처럼 삼보에 대한 귀의는 수계의 시작이다. 삼귀의를 기점으로 출가자 또는 재가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기에 불교에서 삼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출가자에게 수계는 타인의 권유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기에, 재가자와 달리 수계 의식은 매우 엄숙하게 진행된다. 또한 출가자는 재가 신자에게 존경과 복덕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의식은 더욱 장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계 장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결계(結界) 구역을 설정한다. 결계 구역은 계를 주는 스승과 계를 받는 수계자만 입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계식의 신성함을 상징한다.

출가자의 수계는 계단(戒壇)에 올라 이루어진다. 계단(戒壇)은 평지보다 조금 높게 만드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3층(層) 형태를 띠게 됐다.

> 삼보 귀의로 여는 참된 불제자의 길
> 고귀한 결단, 엄숙한 의식으로 장엄
> 출가 엄중함 새겨 높은 계단서 진행
> 진정한 수행자 서원·실천 의지 담겨



'제4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에서 수지자 대표 스님이 수계증과 도첩을 받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우리나라 영축산 통도사의 금강계단(金剛戒壇)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계단을 높게 만든 이유는 출가와 수계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유서 깊은 계단으로는 불보사찰인 통도사 금강계단, 김제 모악산 금산사 방등계단, 달성 비슬산 용연사 금강계단 등이 있다.

계단에는 수계자와 그 수계를 증명하는 스승인 3사(三師) 7증(七證)인 열 분의 스님을 모신다. 과거에는 가장 높은 3층 단에 붓다를 대리하는 권위를 가진 3사를 모셨다. 3사란 계를 관장하는 전계대화상, 의식을 주관하는 갈마아사리, 규율과 위의를 가르치는 교수아사리를 말한다. 여기에 수계가 여법하게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일곱 분의 존증아사리가 함께 한다. 다만 오늘날에는 단의 구분 없이 동일한 높이의 단에서 의식을 진행한다.

vippasannāni kho te āvuso indriyāni, parisuddho chavivaṇṇo pariyodāto, kaṃ'si tvaṃ āvuso uddissa pabbajito, ko vā te satthā, kassa vā tvaṃ dhammaṃ rocesīti. atth' āvuso mahāsamaṇo Sakyaputto Sakyakulā pabbajito, tāhaṃ bhagavantaṃ uddissa pabbajito, so ca me bhagavā satthā, tassa cāhaṃ bhagavato dhammaṃ rocemīti.

我師大沙門. 是我所尊. 我從彼學. 優波提舍卽復問言. 汝師大沙門說何法耶. 報言. 我年幼稚出家日淺. 未堪廣演其義.

[사리불]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청결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대는 누구에 의지하여 출가했고,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고,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앗사지] "벗이여, 석가족 출신의 석가의 아들인 위대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세존께 의지해서 출가했고, 그 세존께서 나의 스승이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 마하박가 대건도 –

수계식에서는 모든 계율을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붓다 당시부터 승가에서 추방될 수 있는 중죄인 4바라이는 반드시 설명하도록 돼 있다. 수계 이후 바라이죄를 몰라 범계(犯戒)하고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출가자의 최소 생활 방식인 4의지(依止, 탁발·분소의·수하좌·부란약)도 함께 설명한다. 이는 출가 생활의 실상을 미리 알려주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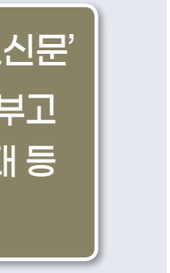
이처럼 수계는 단순히 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규칙과 생활 방식을 전수하는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구족계를 통해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지킬 것을 서원한다. 모든 계율이 완벽하게 구비돼 깨달음으로 나아갈 바탕이 됐다는 의미에서 구족계라 부른다. 예비 출가 단계인 사미·사미니는 10계, 식차마나니는 6계를 지키며 구족계를 받을 준비를 한다.

비구의 250계를 한 번이라도 어겼다고 해서 모두 승가에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엄격한 처벌은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로, 이를 범하면 승가에서 영구 제명되며 다시는 출가할 수 없다. 그 외의 죄들은 선배 스님들에게 배워 익히며 참회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처벌의 종류에는 바라이 외에도 20인 이상의 승가 의결이 필요한 승잔(僧殘, saṃghādisesa), 2~3명의 스님 앞에서 참회하는 바일제(波逸提, pācittiya), 1명의 스님에게 참회하는 바라제사니(波羅提提舍尼, pāṭidesanīya),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는 돌길라(突吉羅, dukkuṭa) 등이 있다. 이처럼 출가자가 받는 모든 계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수계는 출가자로서의 시작임과 동시에 삼보의 한 축인 승보가 되어가는 신성한 과정이다. 수계에는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서원과 실천 의지가 담겨 있다. 계를 받은 후에는 이를 지키려 노력하되, 혹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를 통해 다시 수행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